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1076@kiwoom.com



미 증시, 고용보고서 경계감 지속되는 가운데 증동 정세 악화에 하락

미국 증시 리뷰

2일(수), 3일(목) 미국 증시는 미 고용보고서 발표에 대한 관망세가 지속된 가운데 증동 지정학적 리스크, ISM 서비스업 PMI 등을 소화하며 혼조세로 마감(2거래일 누적, 다우 -0.34%, S&P500 -0.15%, 나스닥 +0.05%)

미 노동부에서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9월 22일~28일)는 22.5만 건을 기록하며 컨센서스(22.1만 건)와 전월 수정치(21.9만 건)를 모두 상회. 허리케인 및 파업 등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인원이 높아졌던 것으로 판단. 한편,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2.6만 건으로 전월 수정치(182.7만 건)를 소폭 하회.

미 공급관리협회(ISM)의 9월 서비스업 PMI는 54.9를 기록하며 컨센서스(51.7)와 전월치(51.5)를 큰 폭으로 상회, 3개월 연속 서비스업 확장세 유지. 세부 지표 살펴보면, 신규 수주지수는 전월 53.0 → 59.4, 기업활동지수는 전월 53.3 → 59.9로 상승하며 전체 서비스업 PMI 상승을 견인. 반면 고용지수는 전월 50.2 → 48.1로 하락하며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 금번 서비스업 PMI 호조는 연말 쇼핑시즌을 앞둔 소비 기대감 등 계절적 요인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판단.

주요 종목을 살펴보면, M7 종목 중 애플(-0.49%), 마이크로소프트(-0.14%), 아마존(-1.52%), 테슬라(-3.36%)는 하락한 반면, 엔비디아(+3.37%), 메타(+1.74%)는 상승. 엔비디아는 블랙웰 칩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언급한 젠슨황 CEO의 발언으로 상승하였고, 전반적인 반도체 긍정적인 투자심리가 이어지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 날 0.51% 상승. 한편, 3분기 인도량 발표치가 시장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영향으로 테슬라는 일부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3%대 하락 시현.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국내 휴장기간 포함 2거래일 간 미 증시는 4일(금) 발표 예정인 고용보고서에 주목하며 숨고르기 양상이 지속된 가운데 증동발 전쟁 리스크 확산 여부에 주목하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을 연출.

전반적인 미 증시 내 방향성 베팅이 부재한 가운데 4일(금) 예정된 미국의 비농업 고용보고서 결과가 미국 경기 연착륙을 뒷받침하지 혹은 재차 경기 침체 내러티브를 촉발시킬지에 주목할 필요. 금주 발표된 JOLTs 구인건수와 ADP 민간고용은 모두 시장예상치와 전월치를 상회하였으나,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내 고용지수는 모두 전월 대비 악화되며 혼재된 양상을 보임. 이에 따라, 미 고용보고서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아진 가운데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증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현재 컨센서스 기준, 9월 실업률 4.2%, 비농업고용 14.8만 명)

3분기 테슬라 인도량은 역사상 3번째로 높은 수치인 46.2만 대를 기록하며 시장예상치(46.1만 대)를 소폭 상회하는 결과였으나 최근 높아진 눈높이(47~48만 대)를 충족시켜주지는 못하며 장중 3%대 하락. ESS 부문은 6.9MWh로 전분기(9.4MWh) 대비 -26% 감소하였으며 생산량은 46.9만 대를 기록하며 예상치(46.5만 대)를 상회. 3분기 인도량 발표 이후 일부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가운데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른 중국 전기차 업체와의 경쟁 강화는 부담 요인. 다만, 10/10 테슬라 로보택시 데이, 10/23 실적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시 관련 일정을 소화해나가는 과정에서 주가 모멘텀이 재차 탄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지켜볼 필요.

한편, 이란-이스라엘 간 지정학적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글로벌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 최근 이란 측은 이스라엘이 보복할 경우 재보복을 실행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전면적 확대에 대한 우려가 확대. 이와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논의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WTI 유가는 5%대 급등. 지정학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뉴스플로우가 지속되는 만큼 증동 정세 악화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 공급망 압력이 높아질 경우 유가 급등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특히,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재상승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당분간 유가 방향성에 증시 민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

2일(수) 국내 증시는 휴장을 앞두고 증동 정세 악화, 미국 항만 파업,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매도세 등의 요인으로 장 막판 낙폭을 확대하며 양 지수는 하락 (코스피 -1.22%, 코스닥 -0.23%)

금일 국내 증시는 증동 정세 악화, ISM 서비스업 PMI 등 휴장 기간 이슈를 소화하고 미 고용보고서 및 금투세 시행 여부에 주목함에 따라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다만, 최근 약세를 보였던 달러화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 및 양호한 경기 지표 등에 힘입어 재차 강세로 전환함에 따라 원화 강세로 인해 약세를 보였던 일부 수출주 중심으로 지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판단.

특히, 최근 들어 대외 민감도가 높아져 있는 국내 증시 특성상 현재 매크로 영향력이 강한 중화권과 일본 증시 흐름을 체크해야 할 필요. 최근 2거래일 간 중국 본토 증시는 국경절로 휴장인 가운데 홍콩 항셱 지수는 경기 부양책 효과가 지속되며 4.6% 급등세 시현. 물론, 전일 홍콩 항셱 지수는 단기적인 급등으로 인해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었으나 장 후반부 낙폭을 일부 만회(장중 저가 -4.4% → 종가 -1.4%로 마감).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중화권 증시의 우호적 투자 심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경절 이후 발표될 소비 데이터 및 제조업 PMI와 같은 경기 지표가 중화권 증시 반등의 지속성과 강도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

한편, 이시바 신임 총리가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한 가운데 달러/엔 환율은 146엔 대로 상승하고 수출 기업 비중이 큰 니케이225 지수는 1.9%대 상승. 매파적으로 평가받았던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이후 일각에선 금리인상 → 엔화 강세 →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재차 제기되었지만, 금번 금리 인상 시기 상조 발언으로 인해 관련된 우려는 일단은 완화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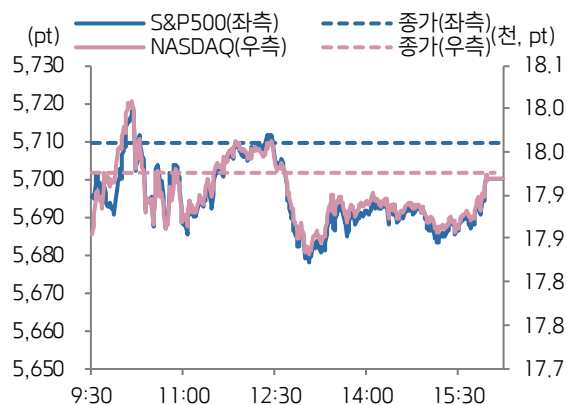
이처럼, 일부 노이즈는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국내 증시의 상대적 소외 현상은 지속되는 상황. 실제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합산 20일 평균 거래대금은 현재 약 16조원 수준으로 연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중. 이처럼 유동성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에는 크게 1)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섹터 부진, 2) 대규모 부양책 효과로 인한 중화권 증시로의 쏠림 현상, 3) 금투세 시행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먼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는 점이 국내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 특히,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도 흐름은 18거래일 연속 지속되며 연초 순매수 자금의 대부분을 되돌린 상황. 결국, 국내 증시가 반전의 실마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증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의 순매도 흐름이 멈춰야 할 필요. 최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젠스항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견조한 AI 수요로 인해 AI 피크아웃 우려는 완화된 상황. 다만, 아직까지 레거시 반도체 업체의 실적 의구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차주 예정된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10/8)가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의 투자심리 전환을 결정할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

한편, 부양책 발표 이후 나타난 중화권 증시의 급등은 과매도권 영역이었던 증시의 수급적 되돌림이 극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 따라서, 패시브 자금 중심으로 나타난 단기 숏커버 랠리의 강도가 점차 잦아들다면 아시아 증시 내 중화권 증시로의 쏠림 현상 및 국내 증시에서의 이탈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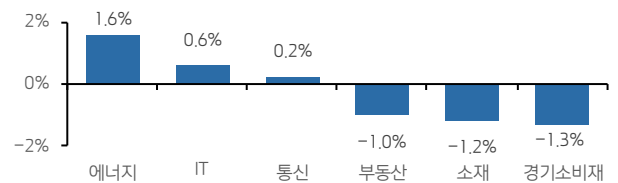
또 하나의 수급 이탈 요인이었던 금투세 시행 여부도 현재 유예 또는 폐지로 방향성이 잡히는 모습.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 내 의견 수렴 끝에 당초 검토된 금투세를 폐지 쪽으로 선회했다는 내용이 전해짐. 이에 민주당은 금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하여 시행, 유예, 폐지 등 선택지를 놓고 거수로 결정할 예정. 금투세가 유예 또는 폐지로 결정될 경우 증시 내 수급 여건은 한층 개선될 것으로 판단. 또한, 상대적으로 금투세로 인한 수급 이탈 영향이 컸던 코스닥의 상대 강세 현상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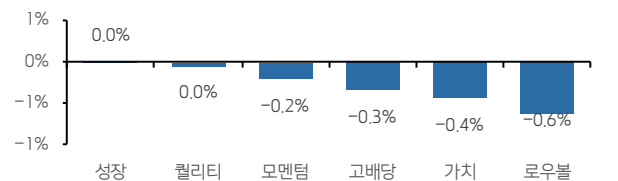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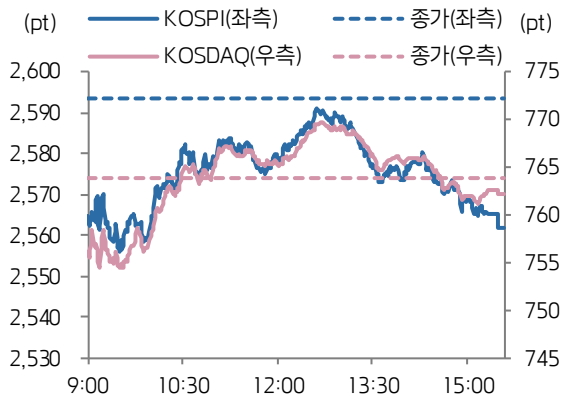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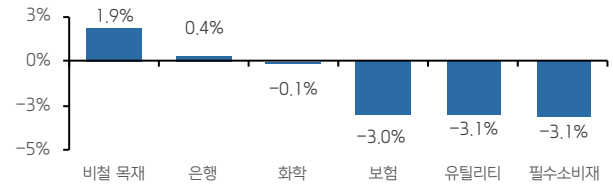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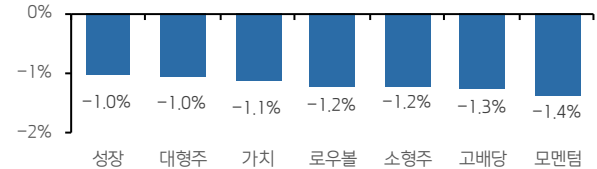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225.67	-0.49%	+17.66%	GM	44.98	+0.36%	+26.24%
마이크로소프트	416.54	-0.14%	+11.38%	일라이릴리	885.55	-0.62%	+52.65%
알파벳	165.86	+0%	+19.03%	월마트	80.43	+0%	+54.54%
메타	582.77	+1.74%	+65.14%	JP모건	205.23	-0.99%	+22.78%
아마존	181.96	-1.52%	+19.76%	엑손모빌	122.58	+0.87%	+25.75%
테슬라	240.66	-3.36%	-3.15%	셰브론	151.25	+0.2%	+4.7%
엔비디아	122.85	+3.37%	+148.12%	제너럴일렉트릭	80.43	+0%	+54.5%
브로드컴	171.89	+0.72%	+55.65%	캐터필러	391.09	-0.75%	+33.91%
AMD	162.85	+1.92%	+10.47%	보잉	150.52	-1.55%	-42.25%
마이크론	101.82	+1.97%	+19.53%	넥스트에라	85.05	-0.4%	+43.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561.69	-1.22%	-3.52%	USD/KRW	1,323.00	+0.47%	+2.72%	
코스피200	340.72	-1.17%	-4.82%	달러 지수	101.94	+0.26%	+0.6%	
코스닥	762.13	-0.23%	-12.05%	EUR/USD	1.10	-0.13%	-0.07%	
코스닥 150	1,294.90	+0.51%	-7.07%	USD/CNH	7.05	+0.21%	-1.04%	
S&P500	5,699.94	-0.17%	+19.5%	USD/JPY	146.93	+0.31%	+4.18%	
NASDAQ	17,918.47	-0.04%	+19.37%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2,011.59	-0.44%	+11.47%	국고채 3년	2.782	-2.3bp	-36.3bp	
VIX	20.49	+8.41%	+64.58%	국고채 10년	2.935	-5.7bp	-24bp	
러셀2000	2,180.15	-0.68%	+7.55%	미국 국채 2년	3.705	+6.4bp	-54.5bp	
필라. 반도체	5,125.21	+0.51%	+22.75%	미국 국채 10년	3.846	+6.5bp	-3.3bp	
다우 운송	15,745.39	-1.42%	-0.97%	미국 국채 30년	4.178	+4.8bp	+15bp	
상해종합	3,336.50	+8.06%	+12.15%	독일 국채 10년	2.144	+5.2bp	+12bp	
항생 H	7,914.16	-1.58%	+37.2%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82,497.10	-2.1%	+14.2%	WTI	73.71	+5.15%	+4.33%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7.62	+5.03%	+0.75%
Eurostoxx50	4,921.33	-0.85%	+8.84%	금	2,679.20	+0.36%	+24.03%	
MSCI 전세계 지수	845.51	-0.04%	+16.3%	은	32.46	+1.7%	+34.78%	
MSCI DM 지수	3,685.92	-0.21%	+16.31%	구리	455.30	-2.06%	+17.03%	
MSCI EM 지수	1,187.97	+1.31%	+16.04%	BDI	1,978.00	-2.56%	-5.54%	
MSCI 한국 ETF	62.70	-1.1%	-4.32%	옥수수	428.25	-0.98%	-14.95%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603.50	-1.91%	-9.79%
비트코인	60,776.03	-0.21%	+42.98%	대두	1,046.00	-0.95%	-16.03%	
이더리움	2,342.07	-1.82%	+2.62%	커피	252.05	-1.73%	+33.8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2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